Wetti

좋은 사람이고는 싶은데

관계 속에서 들키는 속마음



4개의 장면, 20개의 마음

친구 · 가족 · 직장 · 혼자 있는 시간

좋은 사람이고는 싶다.
다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서.

축하하면서 부럽고, 보내면서 붙잡고, 괜찮다고 말하면서 지친다.
웨티의 작은 몸짓 속에서 우리가 모른 척했던 마음을 만난다.

번호 / 작품명		전시 규격 제안 (가로 × 세로)
01	**친구 사이**	
01	축하는 하는데	100호 F · 162 × 130.3 cm
02	나 빼고 재밌었어?	20호 M · 72.7 × 50 cm
03	안 재고 있어	40호 F · 80.3 × 100 cm
04	삐진 건 아닌데	80호 F · 145.5 × 112.1 cm
05	네 편이긴 한데	60호 M · 130.3 × 80.3 cm
02	**가족 사이**	
06	혼자 한다며	30호 F · 90.9 × 72.7 cm
07	가라니까 왜 가	60호 P · 130.3 × 89.4 cm
08	내가 알아서 할게	40호 F · 80.3 × 100 cm
09	걱정만 했어	120호 F · 193.9 × 162.1 cm
10	다 너 잘되라고	80호 F · 145.5 × 112.1 cm
03	**같이 일하는 사이**	
11	제가 한 건데요	60호 M · 130.3 × 80.3 cm
12	잠깐이면 된다며	50호 S · 116.7 × 116.7 cm
13	제가 할게요	50호 M · 116.7 × 72.7 cm
14	듣고 있습니다	30호 P · 90.9 × 65.1 cm
15	좋은 의견이네요	80호 M · 145.5 × 89.4 cm
04	**혼자 남았을 때**	
16	내가 좀 괜찮지	40호 S · 100 × 100 cm
17	안 부러워. 거의.	20호 F · 72.7 × 60.6 cm
18	괜히 그랬어	60호 F · 130.3 × 97 cm
19	내일의 내가 할게	50호 F · 116.7 × 91 cm
20	그래도 내 편	100호 S · 162 × 162 cm

재료 설정: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1 / 20

축하는 하는데

축하는 진심이다. 부러운 것도 진심이고.

100호 F · 162 × 130.3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2 / 20

나 빼고 재밌었어?

안 궁금한 척하기엔 몸이 너무 기울었다.

20호 M · 72.7 × 50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3 / 20

안 재고 있어

비교할 생각은 없었다. 발뒤꿈치가 먼저 움직였을 뿐.

40호 F · 80.3 × 100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4 / 20

삐진 건 아닌데

안 삐졌다. 지금은 이쪽 풍경이 더 좋을 뿐.

80호 F · 145.5 × 112.1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5 / 20

네 편이긴 한데

마음은 네 편인데, 어깨는 슬슬 한계다.

60호 M · 130.3 × 80.3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6 / 20

혼자 한다며

도움은 필요 없는데, 손은 놓지 마.

30호 F · 90.9 × 72.7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7 / 20

가라니까 왜 가

보내는 말은 했지만, 놓는 법은 아직이다.

60호 P · 130.3 × 89.4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8 / 20

내가 알아서 할게

혼자 할 수 있다. 보고는 있어 줘.

40호 F · 80.3 × 100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09 / 20

걱정만 했어

걱정은 조금, 확인은 열 번.

120호 F · 193.9 × 162.1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0 / 20

다 너 잘되라고

응원은 세 배, 내 자리는 반 칸.

80호 F · 145.5 × 112.1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1 / 20

제가 한 건데요

박수는 앞에서 받고, 손은 뒤에서 들었다.

60호 M · 130.3 × 80.3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2 / 20

잠깐이면 된다며

잠깐이 길어져서, 자세부터 퇴근했다.

50호 S · 116.7 × 116.7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3 / 20

제가 할게요

손 하나 들었는데, 일이 셋이나 왔다.

50호 M · 116.7 × 72.7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4 / 20

듣고 있습니다

고개는 끄덕였고, 마음은 먼저 퇴근했다.

30호 P · 90.9 × 65.1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5 / 20

좋은 의견이네요

칭찬은 밖으로, 한숨은 안쪽으로.

80호 M · 145.5 × 89.4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6 / 20

내가 좀 괜찮지

칭찬이 늦어서 내가 먼저 했다.

40호 S · 100 × 100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7 / 20

안 부러워. 거의.

안 보려고 했는데, 한쪽 눈이 협조를 안 한다.

20호 F · 72.7 × 60.6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8 / 20

괜히 그랬어

할 말은 끝났는데, 그 말만 남았다.

60호 F · 130.3 × 97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19 / 20

내일의 내가 할게

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꽤 믿는다.

50호 F · 116.7 × 91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



20 / 20

그래도 내 편

못마땅한 나까지 데리고, 오늘은 같이 쉰다.

100호 S · 162 × 162 cm

전시 규격 제안 · 코튼 수채화지 300 g/m²에 수채